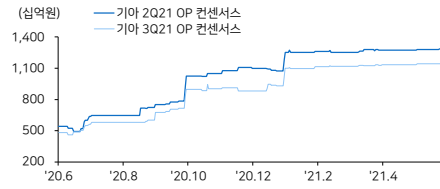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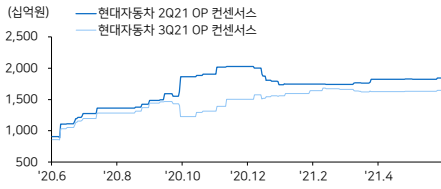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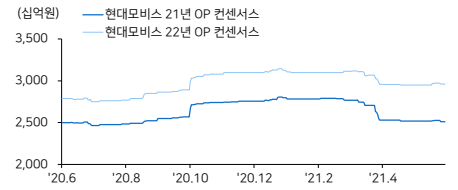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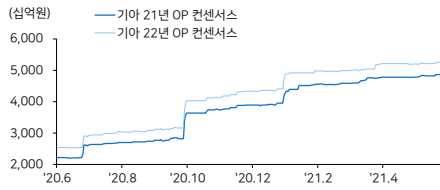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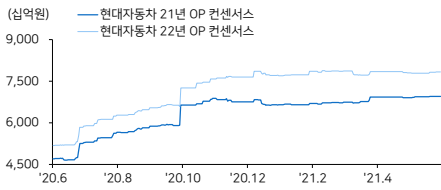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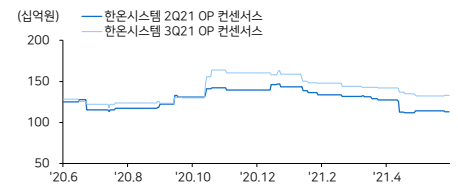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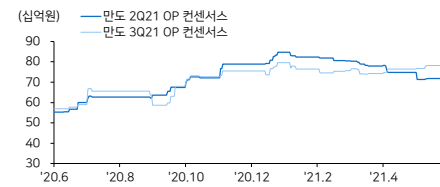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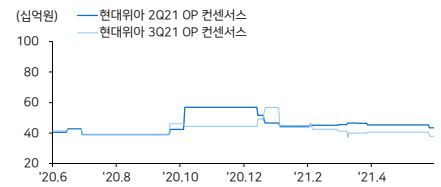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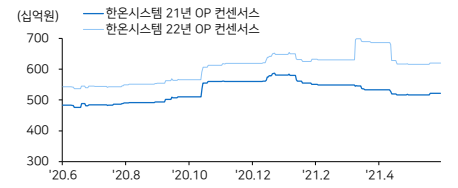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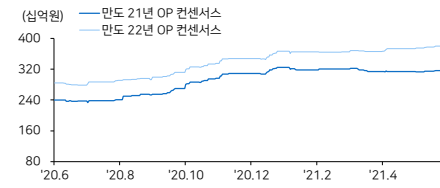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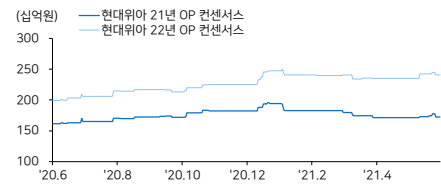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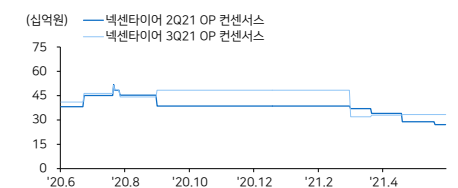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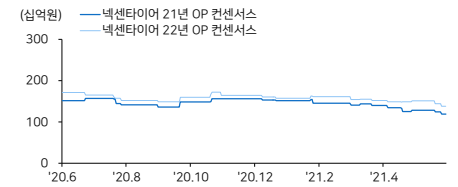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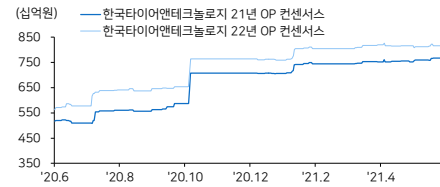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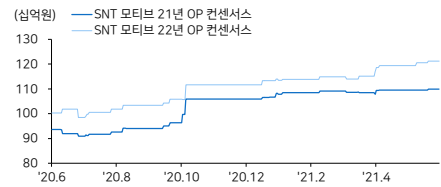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차세대 배터리' 솔리드에너지에 1억달러 투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리튬배터리 개발사인 솔리드에너지시스템(SE5)에 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이번 투자로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해석됨. 관계자는 "전동화 관련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 <https://bit.ly/3hwC19v>

세단의 반전' 현대차·기아 美 역대 최대 판매 '핵심 조력' (THE GURU)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상반기 약 80.5만대를 판매하여 역대 상반기 최대 판매량을 기록함. 전년 동기 대비 48.1% 상승한 수치로 상반기 실적들 공개한 완성차 업체들의 평균 판매 증가율 33.7%를 크게 상회함. <https://bit.ly/3Au2Mnt>

차박 열풍에 대형 SUV 판매 43% 증가...소형은 9% 줄어 (중앙일보)

올해(1~5월) 팔린 RV는 27만9169대로 yoy + 4.5% 증가했으며, 중대형(2~3L) SUV는 8만4,911대가 팔려 지난해보다 43.1%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만대 돌파가 예상됨. 고가의 대형 SUV도 +20.6% 늘어 사상 최대 기록 전망. <https://bit.ly/3di7rJb>

중국은 지금 소형 전기차 '봄'...올해 70만대 판매 예상 (THE GURU)

연말까지 중국 내 소형 전기차 판매량이 70만대를 초과할 전망. 지난해 신에너지 자동차가 136만 대가량 판매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중. 중국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https://bit.ly/2TyOy4f>

현대차·기아 상반기 친환경차 판매 40% ↑...10만대 돌파 눈앞 (연합뉴스)

현대차·기아는 올해 1~6월 내수 시장에서 친환경차를 총 9만4천대 판매해 작년 같은 기간(6만7천대)에 비해 39.3% 증가함. 이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추가되면서 수요를 견인함과 동시에 전기 트럭의 인기 때문으로 해석됨. <https://bit.ly/3xfSSE4>

현대차 사내 스타트업 3곳 분사... 올해까지 25개사 독립 (조선비즈)

현대그룹은 디핀과 오토엘, 데이타몬드 등 미래 신사업 분야 사내 스타트업 3곳을 분사했다고 4일 밝힘. 디핀은 '과과을 기반 원도우 필름'을, 오토엘은 '고해상도 라이다 센서', 데이타몬드는 '고객참여형 포인트 플랫폼'을 개발 중. <https://bit.ly/3AqYFc1>

LG, 카카오톡에 1,000억 투자 (서울경제)

(주)LG가 카카오톡에 1,0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2일 밝힘. 협력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주행 데이터 확보 및 배터리 교환, LG전자의 전기차 충전 솔루션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취지. <https://bit.ly/3weu5IA>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끝내 당국에 철폐...개인정보 '빌미' 업 제거 명령 (서울신문)

지난 4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규정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구글 플레이' 등 앱 마켓들을 상대로 디디추싱 앱을 제거하라고 명령함. 이는 지난 2일 안보조사 개시 이틀만에 나온 조치임. <https://bit.ly/3HcJdAO>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